Xylene, 3월 수입가격 22.5% 쟁총

한국은행, EG는 22.2% 상승 ... 전체 수입물가 전월대비 1.8% 올라

화학제품의 주도로 3월 수입물가가 전월대비 1.8%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.

한국은행에 따르면, 2003년 3월 수입물가는 원화환율 상승과 생산 감소로 원자재(1.4%), 자본재(3.5%), 소비재(4.2%)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면서 2월보다 1.8% 상승했다. 2002년 3월과 비교해도 2.8% 오른 것이다.

다만,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환율 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 기준(외화표시 수입가격)으로는 1.7% 내림세를 나타냈다.

중간원자재는 3.7% 상승했는데 원화환율 및 원료가격 상승, 생산 감소 등으로 섬유제품(5.7%), 화학제품(6.3%), 금속1차제품(5.3%) 등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화학제품 가격은 TPA 증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자일렌이 22.5% 상승하고, 정기보수에 따른 공급감소로 염화에틸렌(EDC)이 12.0%, EG(Ethylene Glycol) 22.2%, 메탄올 15.7% 각각 상승한 반면,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제품은 나프타 2.8%, 벙커C유 5.9%, 경유 0.2% 각각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1.5% 떨어졌다.

수입물가 등락률 비교(2003.3)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요 품목
기초원자재	-1.5	
중간원자재	3.7	
섬유제품	5.7	면사(12.2), 면직물(10.1), 화학섬유방직사(4.0), 모직물(9.7)
석유제품	-1.5	나프타(-2.8), 벙커C유(-5.9), 경유(-0.2)
화학제품	6.3	자일렌(22.5), 염화에틸렌(12.0), EG(22.2), 메탄올(15.7)
금속1차제품	5.3	빌렛(7.0), 합금철(11.3), 스텐레스강관(13.1), 열연대강(3.6)
기계부품	3.1	집적회로(2.0), 컴퓨터부품(3.6), 모뎀(3.8)

† 전월대비

또 섬유제품(5.7%)은 원화환율 및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면사, 면직물, 화섬방직사, 모직물 등이 상승하고 금속1차제품(5.3%)은 빌렛, 합금철, 스텐레스강관 등이 원화환율 상승과 공급 감소로, 기계부품(3.1%)은 원화환율 상승으로 집적회로, 컴퓨터부품, 모뎀 등으로 각각 오름세를 기록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17>